

사순절 넷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IN LENT

주후 2024년 3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5 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통일 10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7 번 사순절 (4)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민(Numbers) 21:4-9, 요(John) 3:14-21	임경찬 집사
찬 양 Anthem	“우리 때문에”	찬양대
설 교 Sermon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이 땅 위에 오산”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90 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 41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좇아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 요 3: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NIV John 3: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0 (주일)	3/11 (월)	3/12 (화)	3/13 (수)	3/14 (목)	3/15 (금)	3/16 (토)
	출22	출23	출24	출25	출26	출27	출28
본문	요1	요2	요3	요4	요5	요6	요7
	욥40	욥41	욥42	잠1	잠2	잠3	잠4
	고후10	고후11	고후12	고후13	갈1	갈2	갈3

수/요/ 찬/양/ 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13 오후7:30)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느니라” (벧후2:12-22)
토요새벽기도회 (3/16 오전6:30)	“그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130:1-8)

지난 주일(3/3,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 19:7-14, 요 2:13-22)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 (무려) 46년 동안 대대적인 확장 과 보수 공사를 거쳐, 솔로몬에 의해 처음 지어졌던 1차 성전 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수 많은 제사가 드려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Temple)은 어느덧 장터(Market Place) 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예배...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분주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옆으시기까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 자,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 2:18)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고 대답하셨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 께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와 구원 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다”(고전3:16)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 상이 주님 앞에 열납”(시19:14)되도록,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 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